

편도암의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 : 후향적 분석

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중앙내과학교실,¹⁾ 방사선종양학과학교실,²⁾
이비인후과학교실,³⁾ 진단병리과학교실⁴⁾

구동희¹⁾ · 이상욱²⁾ · 김상윤³⁾ · 남순열³⁾ · 최승호³⁾ · 조정자⁴⁾
안진희¹⁾ · 강운구¹⁾ · 이정신¹⁾ · 김우진¹⁾ · 김성배¹⁾

목 적 : 편도암은 구인두에 생기는 가장 흔한 악성 종양으로 수술 및 방사선 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의 단독 및 병합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이 시행되어 왔다. 수술적 치료의 경우 절제 가능한 진행암의 표준 치료로 인식되고 있으나 접근의 어려움과 기능적 손실의 위험성이 있다. 본 연구에서는 편도암에 대한 수술 및 방사선 치료와 항암화학요법 등 치료법의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(방사선±항암화학요법)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방 법 : 1990년 3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원격전이 없이 편평상피 편도암으로 처음 진단되어 치료 받은 8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지를 통한 후향적 분석을 실시하였다. 동시 항암화학요법에서는 Cisplatin±Tegafur/uracil(UFT)를 사용하였고, 유도 항암화학요법으로는 5-FU+Cisplatin(FP), Docetaxel+Cisplatin(DP), Docetaxel+5-FU+Cisplatin(DFP)을 사용하였다.

결 과 : 전체 87명 중에 생존한 환자들의 중앙 추적기간은 44.0개월(범위, 4.7~187.0개월)이고, 발병 시 중앙연령은 53세(범위, 27~90세), 남녀 수는 각각 76, 11명이었다. 병기는 stage I이 4명(4.6%), II가 11명(12.6%), III가 12명(13.8%), IV가 60명(69.0%)이었다. 치료 방법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면 단독 방사선치료 군이 12명(13.8%),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요법 군이 8명(9.2%), 유도 항암화학요법 후 방사선치료 군이 8명(9.2%), 유도 항암화학요법 후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받은 군은 10명(11.5%),

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군은 39명(44.8%)이었고 유도 항암화학요법 후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요법을 받은 군은 10명(11.5%)이었다. 치료성적을 1) 수술을 받은 군, 2)동시 항암화학 방사선요법을 받은 군, 그리고 3) 단독 방사선치료 혹은 유도 항암화학요법 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군(RT±CT)으로 나누어 각각 비교하면 병기 stage I, II가 7명(14.3%), 3명(16.7%), 5명(25.0%), III, IV가 42명(85.7%), 15명(83.3%), 15명(75.0%)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(p .56). 중앙연령은 각각 50세(27~67), 53세(27~67), 59.5세(27~90)이고, 방사선량의 중앙값은 각각 6040cGy(2700~7520), 7000cGy(1600~7600), 7030cGy(3420~8020)이었다. 재발은 각 군마다 각각 8명(16.3%), 1명(5.6%), 5명(25.0%)이었고, 재발 패턴은 국소 재발이 각각 6명(75.0%), 1명(100%), 5명(100%), 원격 전이 단독이거나 국소 재발과 동반된 경우는 수술을 받은 군에서만 2명(25.0%) 발생하였다. 전체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82.7%였고, 각 군별 5년 생존율은 각각 86.1%, 88.9%, 73.2%(p .70)였으며 stage III, IV의 경우 각 군별 5년 생존율은 86.4%, 85.7%, 73.9%(p .83)이었다.

결 론 : 편도암의 수술 치료는 비교적 우수한 생존율과 낮은 국소 재발율을 보여주나,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 요법은 수술 치료와 비슷한 생존율 및 낮은 원격 전이와 더불어 기능적 보존을 가능케 하므로 향후 비수술적 치료에 대한 전향적인 비교 및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.